

(가칭)경기 문화예술 대축제 TF 1차 회의('21.11.18)

□ *****

- 경기도의 정체성을 담자는 발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전문화를 다루었지만 이제는 예술대축제 형식으로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이 함께 참여하는 장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로 발전해 왔음
- 경기도의 문화올림픽 개념이 될 것이고 매년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선정된 지역에서 주관하고 나머지 시군과 문화예술계가 참여를 하는 방식이 될 것임
- 오늘 회의의 출발점은 축제의 방향성이 담긴 명칭을 정하는 것이고 그 논의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, 정책목표,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
- 31개 시군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, 지역예술인 등 문화자산들을 의미 있고 재미있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함
- 축제를 예술플랫폼으로서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논의되는 아이디어나 여기 나와 있는 제안들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
- 지속가능한 예술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나 기준, 운영주체, 운영방식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의 논의가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함
- 경기도가 자원과 틀을 만들고 시군이 주관이 돼서 예술인들이 모여 문화올림픽 방식으로 개최할 때 시군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참여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
- 도가 주도해서 개최를 시작하고 점차 시군의 참여의지를 보고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정착 시키느냐의 논제가 고민됨
- 축제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인센티브가 상금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가 필요
-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적 정책목표와 축제로서 성공요소를 어떻게 절충시켜 나갈 지에 대한 부분을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작업해 나가야 함

□ *****

- 명칭에서 문화를 제외하고 경기예술대축제의 개념으로 좁혀서 논의해야 함

- 도민체전과 같이 예술분야에서도 전문예술인 분야와 생활예술인 분야로 나누어서 경연을 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- 31개 시군의 각 예술분야 단체들이 경기대축제에서 경연을 한다면 이를 준비하기 위해 연습할 것이고 발표할 수 있는 무대를 통해 예술계에도 역동적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임
- (가칭) 경기예술대축제로 정한다면 문화재단이 중심이 되어 경기도 차원에서 축제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것임
- 경기도민체전이 처음에 시범종목을 같이 진행하면서 정식종목을 늘려가는 방식을 채택했는데, 경기예술대축제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음
- 예술시장이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종합예술 분야의 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
- 문화체육관광국 산하에 있는 경기문화재단, 한국도자재단, 경기콘텐츠진흥원, 경기아트센터, 경기관광공사가 같이 한다면 충분히 볼거리들을 제공할 수 있음
- 도민체전과 같이 선정된 시군에게 50~6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한다면 문화시설 개선과 함께 공간이 마련되고 예술인들에게 활력소가 될 수 있음
- 축제 전문가들이 잘 기획해준다면 앞으로 의회에서는 조례를 만들고 토론회를 개최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

□ *****

- 높은 도덕적, 정치적, 사회적 메시지 등 사명감을 가지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축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
- 어떻게 엮어낼 것인가 충분한 고민 없이 탁상공론을 거쳐서 실행에 옮겼을 때 우리의 사명의식에만 빠져서 행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
- 예술은 문화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이라는 명칭을 명확히 해야 함
- 도민들은 지역예술가들의 작품보다는 좋은 작품을 보고 싶어하기 때문에 질 높은 예술향유의 기회 제공에 목적을 두고 축제를 만들어야 함

□ *****

- 도시형 축제들은 지역 정체성보다는 놀이중심의 안산거리극축제, 과천마당극축제, 서울 하이서울페스티벌·거리예술축제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음
- 경기도 북부나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공동체 축제를

통해 문화적인 동질성을 유지하려는 향수적인 것들을 담아내고 있음

- 따라서 경기도 전체를 대표하는 정체성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불가능함
- 초창기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새로운 축제가 만들어진다면 이것이 정착되는데 3~5년 정도 걸리고 어느 정도 성장되면 유지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됨
- 생활예술인들 지원은 각 시군별로 실행하고 있고 여기서 대표선수로 선발된 사람들이 축제에 참가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함
- 기존에 종목별·단체별로 예술축제들이 도 단위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유사 축제와 어떻게 차별화를 둘 것인가의 문제가 있음
- 경기도는 한강을 중심으로 남부와 북부지역으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격년제로 남북이 번갈아서 개최하고 도시와 농촌지역을 1대1로 매칭하는 방법도 있음
- 경연제는 양날의 칼, 경연제로 진행하면 참여율은 높을 수 있지만 참여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고 평가의 공정성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음
- 축제가 성공하려면 특정한 장소가 사람들에게 심리적·예술적으로 명소가 되어 인디밴드나 아마추어 단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무대를 만들어주어야 함

□ *****

- 예술에 대한 평가가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경기도민체전과 같은 경연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음
- 31개 시군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순회하면서 문화올림픽 개념으로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고 하나의 상징적 장소가 가장 중요함
- 경기도 시군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축제를 경기도 대표 축제로 멋지게 포장해서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고 예술인 교류의 장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음
- 만약에 특별한 행사를 기획한다면 평화누리공원과 같은 경기도 대표장소를 정어서 31개 시군의 역량을 모아서 다 함께하는 행사로 키운다면 국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축제로 나아갈 수 있음

□ *****

- 경기도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예술축제여야 하고 31개 시군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시스템이 담겨져 있는 축제기획을 고민해 왔음
- 31개 시군이 능동적으로 콘텐츠를 자체기획하고 각 시군의 문화적 역량과 인프라까지 확장시켜 나가는 행사가 되어야 함
- 이 축제가 추진기반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축제 지원조례를

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

- 축제조직위원회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총괄하는 지휘자 역할이 아닌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기구에 담겨져야 한다는 것임
- 상설 축제기구는 의사결정이 아닌 컨설턴트 및 슈퍼바이저 기능을 수행해서 각 시군들이 주체적으로 축제를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함
- 문화올림픽과 같은 경쟁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형식인 자유롭고 창의적인 공정한 시스템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
- 전문가 평가중심이 아닌 함께 소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참여자 복합평가시스템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
- 31개 시군이 순회하면서 개최할 때 어떤 전략적 인센티브가 주어졌을 때 자발적 참여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함
- 만약 가평군에서 재즈를 주제로 콘텐츠화한다면 그 해만큼은 가평 자라섬 페스티벌이 아니라 경기 전체를 아우르는 대규모의 재즈 페스티벌이 될 것임
- 주민들은 지역예술인들의 행사보다는 질 높은 공연 콘텐츠를 보고 싶어하기 때문에 호기심과 관심을 가질만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함
- 행사할 때 30~40% 이상의 예산이 예술 콘텐츠보다는 장소 때문에 휘발되어 버리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해 고정된 장소 또는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
-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 지원을 이원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만 생활예술인 대상 축제를 메인축제의 서브 프로그램으로 담아내는 방법도 있음

□ *****

- 문화를 제외하고 예술이라고 한다면 미술, 음악, 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, 국악 으로 좁혀질 것이고 논의를 할 때 예술의 범주 내에서 명칭을 정해야 함
-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갖추고 있는 경연·공연을 한 지역에 모이게 하여 전문적인 기획으로 아우르고 융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춘다면 기존 행사가 확대되고 고도화될 수 있음
- 축제 방식은 형평성이나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군 순회가 부득이할 수밖에 없고 축제를 개최하는 해당 시군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희망을 줄 수 있음

□ *****

- 생활문화 동호인들에게 연습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생활권 안에서 문화적 활동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은 정책과제로서 매우 중요한 아젠다가 됨

- 하지만 경기예술대축제에 모든 것을 다 담아내기보다는 생활예술인을 위한 공간과 생활문화축제 부분은 별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
- 경기도는 분단이라고 하는 지정학적 결핍과 이를 극복해나가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Let's DMZ를 더 풍성하게 키워냈으면 좋겠음
- 단일도시형 축제가 아닌 31개 시군 연합체인 경기도 기전문화권 메가시티를 대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상품화해서 축제를 만든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
- 세계적 관점에서 실�크로드의 출발지이자 종착지로서의 경기도 역할을 찾아낸다면 오히려 이것이 예술가들에게 주는 어떤 이미지나 근원적인 과제를 더 강하게 나타낼 수 있고 해양·항구도시인 김포나 평택을 활용할 수도 있음
- 2023년도 경기예술대축제 선정도시가 동두천이라면 예산 300억을 세우고 150억은 인프라 나머지 150억은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음
- 또한 동두천은 평화와 예술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40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몽키하우스를 여성전용 공연장으로 만든다면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임